

신생자돈 관리

돼지 폐사의 대부분은 포유기중에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분만 후 1~2월간의 신생초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육성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분만보조 등을 통해 신생초기의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 초유급여

초유는 분만후 24~48시간까지만 분비되고 상유와는 달리 단백질 수준이 높으나 (정상유의 약 4배) 수분함량이 적다. 하지만 감마글로브린,



철분 등의 태반조직을 통해 전이 시키지 못하는 고분자 물질은 초유를 통해서만 전

이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초유를 먹여야 한다.

생후 12시간이 지나면 초유의 흡수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분만초기에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우당 3~4회 포유에 40cc정도를 섭취토록 한다.)

초유에 의한 면역항체는 생후 2주 후에 없어지고 3주차부터 자기면역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생후 10일령 경부터 설사가 다발하므로 이에 충분히 대처하여야 한다.

❖ 보온관리

자돈이 분만전에 생활한 곳의 온도는 38~39(모도체온)이다. 그러나 자돈은 양수에 젖은 상태로 분만되기 때문에 체온유지가 힘들다. 따라서 신생자돈을 위해 분만 즉시 마른 수건이나 톱밥 등으로 양수를 닦아 준 후 일정시간 동안 보온등(적은 34℃) 밑에 넣어둔다.

❖ 견치(송곳니) 제거

견치는 모돈의 유방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자돈간의 싸움시 상대에 상처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제거할 때에는 수평으로 잇몸 가까이 바깥 자르되

잇몸이 다쳐서 피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절치기는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하나의 둔방을 완료한 후에는 절치기를 소독하여(소독액에 담근다) 사용한다.

❖ 탃줄 제거

탃줄은 3~4cm정도 남기고 잘리주며 자른 후에는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둔방 바닥이 망일 경우에는 탃줄이 끊어져 피가 나거나 배꼽 탈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탃줄을 제거하도록 한다.

❖ 꼬리자르기

식미 등에 대비해 꼬리자르기를 하는데 꼬리를 1/2정도 남기고 자른다.

전기절단기를 이용하고절단후에는 소독해 주어야한다.

❖ 고르기 실시

여러복이 비슷한 시기에 분만할 경우 고르기를 실시하면 육성률을 높일 수 있다.



고르기를 하기 전에 초유를 반드시 섭취하도록 하고 모돈당 포유개시두수를 비슷하게 조절한다. 큰 것은 큰 것끼리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한복을 만들어 포유되되 포유능력이 우수한 모돈에게 작은 자돈을 모아서 포유하게 한다. 고르기는 2~3일 후 다시 실시하여 기아로 인한 폐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